

비바이가 낳은 세계적인 조각가 <칸 야스다(侃 安田)>



삿포르역 남쪽 출구에는 도넛을 연상시키는 조각품이 있습니다. 이 조각품은 삿포르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사진 배경이 되거나 삿포르 시민들의 약속장소로도 이용되지만 누구의 무슨 작품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조각품은 비바이가 낳은 세계적인 조각가 칸 야스다의 작품으로 작품명은 '묘무(妙夢)'입니다.

칸 야스다는 비바이 출신으로 이탈리아 북부의 대리석 산지인 피에트라산타를 거점으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묘무라는 작품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그의 작품은 부드러운 감촉, 완만한 곡선의 모양을 한 작품이 많습니다. 이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조각작품이 아닌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작품에 다가가고 싶고 만져보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려는 그의 작품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현재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일본, 도쿄 등에 전시되어 있으며, 한국의 부산 APEC 나루파크에도 '고요한 강'이란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미쓰비시 비바이탄광에서 목숨을 거둔 조선인 노동자의 영혼을 위로하고자 2006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칸 야스다 '고요한 강' -부산 APEC 나루파크-

칸 야스다 야외조각전 9/3~11/20



홋카이도가 개척되고 삿포르가 발전해 오는 동안 큰 역할을 해 온 삿포르 시내 주요 명소에 칸 야스다의 작품 22 점을 전시하는 야외 조각전.

ATRE PIAZZA BIBAI



이탈리아어로 예술광장을 의미하는 'Atre Piazza'. 이곳은 폐교가 된 탄광지구의 초등학교를 개축해 만든 야외 조각미술관이자 시민들의 예술문화교류 광장입니다.



이곳에는 칸 야스다의 작품 40여점이 비바이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전시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일본어,영어) <http://www.artepiazza.jp/>

미야지마누마 늪(宮島沼)



미야지마누마 늪은 일본에서 13번째로 랍사 조약에 등록된 습지입니다. 총면적 30ha의 작은 규모지만 매년 봄과 겨울에 이곳에 날아드는 기러기떼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비바이 하면, 단연 '닭꼬치'



비바이라는 지명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연상되는 단어가 '닭꼬치'일 만큼 비바이 닭꼬치는 지역민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이곳 닭꼬치의 특징은 버리는 것이 없다는 것, 즉 하나의 꼬치에 닭의 껍질부터 시작해 내장, 심장, 간 등을 모두 끼우고 거기에 양파와 닭고기를 끼우면 완성! 또 하나의 특징은 대파가 아닌 양파를 꼬치에 사용한다는 것과 반드시 숯불로 구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스캇푸(개들쭉) 제품



항산화 작용이 높아 열매 한 알을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좋은 과실로 한때 불로장수의 열매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하스캇푸는 강원 이북, 일본, 만주 등에서 서식하며, 비바이시가 일본 최고의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잼, 냉동과실, 과실주, 맥주 등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원조 시오소바



비바이산 메밀을 100% 사용한 쫄깃쫄깃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시레

토코 라우스의 해양심층수로 만든 소금을 사용하며, 장시간 끓인 닭 육수에 고기와 다진 파를 듬뿍 얹은 것이 비바이 시오소바(소금맛)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비바이시의 이모저모 】

◇ 비바이시(美瑛市)의 개요



·면적: 277.61km²
·인구: 25,804 명(2011 년)

이시카리 평야의 중심에 위치한 비바이시는 서쪽에는 이시카리강이 흐르고 있고, 중앙에는 하코다테본선과 국도 12호선이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동쪽은 유바리 산지에서 이어지는 산악지대로 탄광산업이 발전했던 당시에는 이시카리 탄전의 일부로서 많은 양의 석탄을 생산하던 도내 유수의 채탄지였습니다. 비바이탄광의 최전성기였던 1950년대에는 인구가 9만명에 이르렀지만, 탄광산업이 쇠퇴하며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현재는 약 2만 5천여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비바이란 지명은 '말조개가 많은 곳'이란 의미의 아이누어 '피파오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교통: 삿포르역에서 JR로 37분 소요 (삿포르 <- 60km -> 비바이)

<다양한 체험활동>

하스캇푸나 아스파라거스를 직접 따보는 농업체험, 대리석으로 조각품을 만들어보는 조각체험, 도예품 만들기 체험 등도 가능합니다.



국도 12호선

비바이시에서 다카카와시(滝川市)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29.2km의 일본에서 가장 긴 직선도로입니다.



< 비바이시 공식홈페이지 (일본어) >
www.city.bibai.hokkaido.jp/



시코쓰코 호수

신치토세공항이 위치한 치토세시의 시코쓰코 호수는 시코쓰도야 국립공원의 일부로, 일본 최북단에 위치한 얼지 않는 호수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코쓰코 호수는 총면적 78.4㎢로 최대수심은 363m, 주위둘레는 40.4km입니다. 저수량은 20.90㎢로 비와코 호수(琵琶湖)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저수량을 자랑합니다. 지명은 아이누어 '시코쓰(커다랗게 움푹 패인 곳)'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현재의 시코쓰코 호수가 아닌 이 호수의 수원인 치토세강을 가리키던 지명이었다고 합니다.

호수의 남쪽에는 활화산인 다루마에잔 산(樽前山)이 위치해 운치있는 호수의 풍경을 더욱 돋보이게 해줍니다.

◇ 교통편 ◇

신치토세공항->버스로 54 분
신치토세공항->차로 40 분
삿포로 시내->약 1 시간

시코쓰코 호수 (支笏湖)



시코쓰코 호수 주변은 9월 하순부터 단풍이 지기 시작해 10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절경을 이룹니다. 참피나무, 은행나무, 고로쇠나무, 마가목 등이 붉게 물드는 이 시기의 시코쓰코 호수는 홋카이도 단풍 명소이기도 합니다.

시코쓰코 호반에는 3 곳의 온천이 있습니다. 그 중 북서쪽 호반에 위치한 마루고메(丸駒) 온천은 1915년에 개업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온천으로 노천탕에서는 호수의 조망도 가능합니다. 이토온천도 북서쪽 호반에 위치하며, 동쪽 호반에 위치한 곳이 시코쓰코 온천입니다. (좌) 시코쓰코 호수에서 눈에 띄는 붉은 색의 다리, 야마센 철교. 치토세강에 걸쳐 있는 이 다리는 메이지시대 말기 발전소 건설과 목재 운반을 위해 건설했던 철도의 흔적입니다.(우)



시코쓰코 호수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야외 활동~

- ◇킷푸 낚시 - '킷푸란' '각시송어'를 뜻하는 아이누어에서 따온 애칭으로, 6~8월에 킷푸낚시가 가능합니다. 각시송어가 많이 잡히는 만큼 각시송어 요리는 이곳의 명물이기도 합니다.
- ◇보트, 카누, 유람선 등을 탈 수 있으며 자전거를 대여해 호숫가를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 ◇캠핑 - 4월부터 11월까지의 호숫가의 캠핑장 3곳이 개방됩니다.

시코쓰코 호수 관광 안내 홈페이지(일본어) <http://www.shikotsuko.com/>

삿포로 Autumn Fest 한류체험광장

삿포로 가을 축제 기간이었던 지난 10월 1일과 2일 양일간에 걸쳐 열린 이벤트 '한류체험광장'. 이벤트가 열린 주말 내내 비도 오고 날씨도 쌀쌀했지만, 한류의 인기를 실감할 만큼 많은 삿포로시민들이 한국 부스를 찾아주었습니다.



<한국민족의상 체험>



가장 인기를 끌었던 한복 입어보기. 한복을 입고 한국사람이 된 듯 포즈도 취해보며 즐거운 시간을~

<한지공예품 만들기>



한지공예사범 정영희 선생님의 지도로 이루어진 한지접시만들기도 6회 모두 정원이 찰 만큼 대인기~

<한국전통무용 공연>



한국전통춤 연구회 동경지부의 김미복 무용연구소의 단원들이 부채춤, 장고춤, 살풀이춤, 소고춤, 설장고 공연을 펼쳐 주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전통춤을 실제로 볼 기회가 거의 없는 삿포로시민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선보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후세에게 전해줄 보물

홋카이도 유산

그 열번째 이야기

이시카리(石狩), 홋카이도 각 지역

이시카리강

다이세쓰잔 산(大雪山)을 발원으로 가미가와, 소라치, 이시카리 대평야를 형성하며 동해로 흐르는 큰 강. 홋카이도 개척의 역사 속에서 거둔된 홍수에도 교통, 물자운송의 요충지로 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또한 연어잡이 등 홋카이도의 역사와 문화가 아로새겨진 젓줄과도 같은 강입니다.

에베쓰의 벽돌 - 에베쓰시(江別市)

개척사(開拓使)는 홋카이도를 개척할 당시 건축 자재로 벽돌을 장려하여, 홋카이도 내에서 만들어진 벽돌로 구 홋카이도청사를 비롯하여 많은 건물을 세웠습니다. 다이쇼시대 이후 벽돌공장이 도자기흙 지대였던 에베쓰로 이동하였는데 현재도 3개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시카리강



에베쓰의 벽돌

홋카이도의 라면

홋카이도가 라면의 발상지라는 설이 있는 만큼 홋카이도는 라면의 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라면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코다테 소금라면, 아사히카와 간장라면, 삿포로 된장라면은 전국적으로도 인기가 있습니다.

정기스칸 요리

양고기를 맛있게 먹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며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잡은 정기스칸 요리. 양고기는 물론 각종 야채도 듬뿍 먹을 수 있는 건강요리입니다.



라면



정기스칸

연어의 문화

연어는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식료품. 그 옛날 사쓰몬 시대의 유적 중에는 연어를 포획하는 데 사용됐다고 추정되는 장치가 발견됐고, 아이누 민족도 연어잡이를 생업의 근본으로 해 왔다고 전해집니다.



* 아카레가 통신 과월호는 홋카이도청 국제과 한국어 홈페이지 <http://www.pref.hokkaido.lg.jp/foreign/korean.ht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홋카이도 관광 정보는 홋카이도 관광진흥기구 홈페이지 <http://hokkaido.japanpr.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발행: 홋카이도 종합정책부 지사실 국제과 (北海道札幌市中央区北3条西6丁目 TEL: +81-11-204-5114 FAX: +81-11-232-4303)